

아 줌 마 의 새 로 운 길 찾 기

한 정 은

“운동은 안 하고 지역에서 연애 사업만 했구나”라는 우스갯 소리를 듣지만 뜻이 같은 동지를 만나 “비가 새는 판잣집에 고운님과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더냐”하며 결혼을 했다. 생활비의 절반을 남편 출퇴근 시키는 데 쓰며 어려운 살림이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양가의 반대에 부딪혀 ‘함께 사는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생계에 대한 대책’이나 ‘가족계획’ 없이 결혼하자마자 연년생을 줄줄이 낳았다. 남편은 연대 사업과 상근 활동을 하고 있던 관계로 돈 한푼 벌어들일 수 없었고, 그나마 선후배들이 가끔씩 건네주는 돈도 단체의 경상비로 쓰여졌다. 아이들 우유값, 각종 공과금으로 고민을 하던 내가 선택한 일은 결국 과외였다.

돌이켜 보면 ‘진보의 대의’를 명목으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육·탁아, 집안 살림, 운동’이라는 삼중고를 나는 일찍부터 경험하게 된 것이었다. 최소한의 먹거리를 해결하며 집회에 가고 두 녀석 다 우유병을 물려 안고 유모차에 태워 서명운동을 나가는 등 극성스런 엄마가 됐지만, 가슴 한구석은 언제나 허전했다.

97년 <국민승리 21>과 98년 지자체 선거 준비과정에서 조직적, 개인적 아픔을 겪은 남편은 이후 목표 없이 한동안 방황했다. 그 때는 함께 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야속하고 그 동안 더 어려워진 살림에 아이들 부둥켜 안고 속이 상해 영영 운 때도 많았다.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고 한 달 동안 일 나간 남편이 어느 날 내 생일이라고 아주 큰 꽃바구니를 보내 왔던 적이 있었다. 아이들 우

유가 떨어져 가고 있던 차라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 삶에 어울리지 않은 꽃을 보냈다고 화를 심하게 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는데 같이 일하던 분들이 생각해서 보냈다는 것이다. 이 작은 사건은 내게 힘이 되고 다시 열심히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많은 것이 변했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남편은 예전과 달리 기가 많이 죽어 있지만, 단체 활동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모색 중이다. 1999년 아이들이 ‘어린이 집’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나도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전의 지역 활동과는 다른 사회복지 쪽, ‘자활 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큰 아들(가장 손이 많이 필요한 남편), 작은 아들, 막내 아들을 데리고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빈민 운동의 연장선으로 보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흔쾌히 일을 시작했다.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얻은 가장 큰 기쁨은 무엇보다도 내 이름을 찾았다는 것이다. 남들이 볼 땐 우습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내 인생 최초로 ‘명함’을 갖게 됐던 것이다. 예전엔 남편이 주로 대외적인 일을 하던 관계로 주변에서도 ‘누구씨 부인’으로 소개됐지만, 지금은 내 이름의 명함을 들고 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경제적 빈곤자들을 만나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존중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만족감이 일을 하는 데 기쁨을 더 했다.

그러나 지금하고 있는 일들에 마냥 즐거움과 만족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권자들 중엔 불필요한 경쟁 의식이 강하거나, 자립 의지가 부족한 의존적인 분들 때문에 불신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가난 앞에 성인 없다고 이 문제는 왜곡된 사회 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활동의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육아 문제도 여전히 어려운 과제임은 부정할 수 없다. 자녀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인 큰 녀석의 숙제와 준비물은 사실 학부모 숙제로 다가온다. 담임 선생님도 이를 학부모의 학생 관심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말하면서 부담을 준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르주아지’의 자녀와 달리, 맞벌이 서민의 자녀들은 방과 뒤에도 딱히

돌봐 줄 곳이 없어서 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체로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퇴근 전까지 방치되는 일이 많다. 이런 점 때문에 아이의 생각이 커 갈수록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나의 강렬한 염원은 죄스러움으로 자꾸 바뀌어만 간다.

다행히 지역에서 뜻 있는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어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그 분들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기도 하니, 그나마 기를 펴고 일할 수 있고 아이들도 밝게 자라고 있다. 지금 나는 즐겁게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 각종 모임에서 숙제를 시키며 일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역 준비모임에도 나와 아이들은 가장 열성적인 참여자 중에 한 사람이다. 사람이 재산인 지역 사업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얼굴을 익혀야 한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도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복이라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아무튼 일을 찾고 일을 하면서 내 삶이 윤희를 얻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변해 다른 부분에서는 몰라도 최소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착취 구조나 그런 이데올로기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도 확고해졌다. 이런 신념은 의존적인 삶(남편과 남편이 몸담고 있는 단위를 지원하는 삶)이라고 완전히 환원할 수는 없지만 결코 주체적이었다고 할 수 없는 나의 지난 시기를 반성하면서 생겼다.

진보에 대한 상과 경로에 대한 인식도 수정됐다. 거창한 대의와 정치적 수사에 종속된 진보는 건조함만을 조장한다. 나는 일상적인 삶과 지역 속에서 좀더 충실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더욱 소수자에 입장에 선 그런 진보적 삶을 꿈꾸고 있다.

아줌마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역의 ‘알알이,’ ‘참견꾼’이 되고자 한다. 20대 말~30대 초반에 다하지 못한 열정을 두 배, 세 배로 바치고 싶다. 천천히 뿌리내리고 탄탄해지는 30대, 아줌마의 힘은 강하다는 것을 진정 보여주고 싶다. ■

한정은 hju518@freechal.com | 건국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노동자로 생활. 현재 작은자리복지관 자활후견기관 팀장.